

다시 돌아온 음악예능, 색다른 컬래버가 흥행 갈림길



최근 음악예능이 달리고 있다. 요즘의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세 아이들을 뽐거나 경연을 붙이는 데서 더 나아가 다시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다. 사실 음악예능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받는 장르로 자리매김해왔

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차별성 없이 살아남기는 힘들다. 음악예능의 선구자이자 대표 격인 경연 및 서바이벌 형식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드는 지에 따라 이제는 그 루틴한 것으로 변하기도 한다. 그로 인해 최근 음악예능은 주춤

하는 기세를 보였다. 종영한 SBS '더 팬'이나 4부작으로 짧게 편성된 JTBC '너의 노래는' 등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다. MBC '언더나인틴'이나 '킬빌' YG보석함' 등은 저조한 관심을 끌었다.

개성없는 대중성 음악 내세워도 성공 힘들어

이처럼 각 프로그램의 개성이 없으면 아무리 대중성 있는 음악을 내세워도 성공하기 힘들다. 돌아켜 보면 수많은 음악예능 중 작곡과 작사, 고수와 음치의 구별 옛 음악 되짚기 등 다양한 변주를 내세운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둔 것도 이 때문이다. 더 나아가 최근 나오기 시작한 음악예능들 또한 기존 포맷에 새로운 요소를 녹여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한다.

요즘의 프로그램들이 택한 건 바로 '컬래버레이션'. 이미 나온 포맷들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차별화를 꾀하고자 하는 의도다.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은 사소한 변화로도 큰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대중성 있는 주제에 그 프로그램만이 낼 수 있는 색깔을 더하니 시너지가 난다.

최근 첫 방송한 KBS2 '뮤직서플쇼 더 히트'(이하 '더 히트')는 '노래'의 조화에 중점을 뒀다. 이는 히트곡과 히트곡을 매시업해 '더 히트' 할 곡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6팀의 뮤지션이 히트곡을 추천

하고, 두 팀의 곡이 합쳐져 새로운 곡이 탄생한다. 명곡을 가창하거나 커버하는 기존 음악예능 형식과 달리 두 명곡을 합친다는 점에서 색다르다.

특히 곡 추천은 무작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극과 극 장르가 만날 수도 있고 상상하지 못했던 선후배가 만날 수도 있다. 그 과정에는 곡에 얽힌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할 수도 있다. 일례로 최근에는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과 김연자의 '아모르피티'가 만났다.

KBS에서는 이에 컬래버레이션을 직접적으로 내세운 음악예능도 론칭한다. 오는 3월 5일 방송하는 '입맞춤'은 '보컬의 신'이라고 불리는 가수들이 모여 최적의 듀엣 파트너를 찾는 내용. 여기에서도 발라드, 록, 국악, 랩, 뮤지컬 등 장르와 함께 나이를 불문한 가수들이 최고의 상대를 만나기 위한 플레이어로 나선다.

얼핏 '더 히트'처럼 노래의 결합을 내세운 것으로 비춰지지만, '입맞춤'은 더 나아가 아이 컨셉에서

남녀회원들이 끼와 입담, 매력 등을 펼친다.

음악을 뛰어넘어 '사람' 간의 조화라고 봐도 무방하다. MC는 소유와 김중국이 맡았다. 특히 자칭 타칭 '컬래버레이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소유는 플레이어로도 활약하며 프로그램 취지를 더욱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JTBC '스테이지'는 오는 4월 초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 간의 조화를 꾀한다' '춤'을 내세운 '스테이지'는 케이팝(K-POP) 스타와 케이팝을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의 만남을 담는다. 케이팝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서도 붐을 일으키고 있는 요즘 추세를 잘 따르는 형식이다. 아울러 그간 국내 가수들끼리의 듀엣에 집중되어 있던 틀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과연 새롭게 등장한 프로그램들은 낫맛해진 음악예능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예전처럼 기억에 남을 만한 프로그램들을 남길 수 있을까. 보다 신선하고 개성 강한 음악예능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기를 기대해본다.

방탄소년단 5관왕 등 일본 골드디스크 점령한 한류



그들 방탄소년단(BTS)과 트와이스 세븐틴 등 한국 가수들이 제3회 일본 골드디스크 대상을 휩쓸었다.

향한 분위기 속에도 3차 한류붐이 일고 있다는 평이 나왔다.

26일 일본 골드디스크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상내역을 보면 방탄소년단은 베스트 아시아 아티스트로 선정됐으며 '올해의 앨범', '베스트 3 앨범', '베스트 뮤직비디오'까지 총 4개 부문에서 5관왕을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4월 발매한 일본 정규 3집 '페이스 유어셀프'(FACE YOURSELF)가 '올해의 앨범'과 '베스트 3 앨범'에 뽑혔고, 한국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연서

(LOVE YOURSELF 結 ANSWER)가 '베스트 3 앨범'에 들었다.

2017년 10월 일본에서의 첫 동공연 실황을 담은 '2017 방탄소년단 라이브 트릴로지 에피소드 3' 왕스 투어 인 자판 스페셜 에디션이 최고의 뮤직비디오로 기록됐다.

방탄소년단은 "새해부터 좋은 소식을 알릴 수 있어 행복하다"며 "일본 첫 동공연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더 좋은 작품과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년도 5관왕 트와이스는 올해 2관왕에 올랐다. 이들은 일본 정규 1집 '19'로 '베스트 3 앨범'에, 싱

글 2집 '캔디 팝'(Candy Pop)으로 '올해의 다운로드 노래'에 선정됐다.

트와이스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19'는 염원하던 일본 첫 번째 앨범이었던 것은 물론, 트와이스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인 작품이다. 많은 분이 들어주신 작품으로 남아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아시아 신인 가수들에게 주는 '베스트 3 뉴 아티스트' 트로피도 한국 가수들이 싹쓸이했다. 여자친구, 세븐틴, 모모랜드가 그 주인공이다. 특히 세븐틴은 모든 신인상 수상자 가운데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려 '뉴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까지 2관왕을 차지했다.

여자친구는 "이 상이 큰 동기부여가 됐다. 여러분이 응원해준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세븐틴은 "일본에서 데뷔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영광"이라며 기뻐했다. 모모랜드도 "더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다짐했다.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에는 은퇴한 전설적인 솔로 가수 아무로 나미에와 영국 밴드 퀸이 이름을 올렸다.

주최 측은 "아무로 나미에는 1992년 데뷔 이후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일본 음악사에 족적을 남겼다. 패션 머리 모양, 화장법이 사회 현상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일본레코드협회가 주관하는 '일본 골드디스크 대상'은 전년도 음반 판매량과 음원 다운로드 수를 토대로 음악 산업 발전에 공헌한 아티스트와 작품에 시상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지금 안방은 '사제'들의 시대



그야말로 안방은 사제들의 시대다.

그동안 많은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단골 직업으로 검사, 의사, 경찰 등이 각광 받았던 가운데 '사제'가 새롭게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5년 개봉한 배우 김윤식, 강동원 주연의 영화 '검은 사제들'(장재현 감독)이 54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함과 함께 오컬트 장르와 작품 속 사제란 직업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인방에서 사제들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장르물의 명가 채널로 통하는 OCN에서는 '손 the guest'와 '프리스트'를 통해 사제 캐릭터를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앞세웠다. '손 the guest'에서는 김재욱이 연기한 구마 사제 최윤이

등장했다. 극중 최윤은 시니컬하고 냉정한 사제로 원칙주의적이며 차가운 성격을 가진 인물이다. 사제 최윤과 함께 영매, 형사가 함께 공조를 펼친다는 내용의 '손 the guest'는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기록하며 OCN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러 방송됐던 '프리스트'는 구마 사제들을 전편 주인공으로 내놓았다. 연우진과 박용우가 구마 사제 역할을 맡아 초현실적 현상 속에서 소중히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와 특별한 공조를 펼치는 모습을 그렸다. '손 the guest'에 비해서는 비교적 부진한 성적을 보였지만 메디컬 액소시즘 드라마라는 새로운 시도의 의미를 보였다.

현재 방송 중인 SBS 금토극 '열혈사제'에서도 새로운 사제 캐릭터가 시청자와 만나고 있다. 다혈질 사제와 바보 형사가 살인 사건으로 만나 공조 수사를 펼친다는 코미디 사극 '열혈사제'에서는 그동안 작품들에서 그려진 것과는 결이 다른 사제가 등장하고 있다.

바로 감남길(김민준)이 연기하고 있는 분노조절 사제 김해일이다. 김해일은 과거 국정원 요원이라는 특이한 이력과 함께 거침없이 통쾌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다. 기존 작품에서의 사제 캐릭터는 진중하거나 냉철한 모습이었던 반면, 김해일은 확연히 다르다. 색다른 김해일의 모습은 안방에 또 다른 재미를 주고 있다. 이에 '열혈사제'는 SBS 첫 금토극이라는 과거 편성에도 20%(닐슨코리아, 전국 기준)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이와 같이 사제들이 등장하는 드라마가 많아지고 있는 것에는 장르물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큰 몫을 하고 있다. 오컬트, 쉐도우 등 장르에 그동안 마니아층을 위한 장르로 여겨졌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가 확산되며 많은 이들에게도 다가가고 있다. 이에 장르물을 원하는 시청자 층이 급격히 증가하게 됐다. 그중 사제의 인기에 대해 한 제작 관계자는 "사제와 같은 성직자는 사회 속에서 정의를 지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정의 구현 메시지 전달에 효과적이다. 또한 그동안 작품들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직업이기에 신비롭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급격한 인기에도 우려도 있다. 또 다른 방송 관계자는 "종교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을 다루거나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일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불편함을 느끼는 시청자가 있거나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오늘의 운세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음력 1월 23일)



▶**성운** 쓸데없이 한 말이 문제 생긴다. 3, 5, 9월생 하늘밖에 모르는 일을 누군가 알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 북쪽 그, 바, 자 성씨에게 사정 말하면 수습해 줄 듯.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이치 잊지 말고 언행 조심. 붉은색이 안장 준다.



▶**성운** 부모나 자녀로 인해 신경 쓸 일 있다. 직장 일에도 지장 있겠다. 공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오, 사, 툄 성씨 내 것도 아니면서 남의 사람 탐내다 간 뒷덜미 잡혀 관계, 구설수 있게 되니 조심할 것.



▶**성운** 때 아닌 까지 소리로 반가운 소식 듣는다. 때 아닌 수입도 올리니 오랜만에 기분 풀리는 하루. 기분 좋아 과속하면 더 몇 배 슬퍼지는 오후 되니 조심하라. 늦은 길 조심. 1, 5, 9월생 받을 것 독촉하라. 나, 사, 음 성씨 서쪽사람이 도움 준다.



▶**성운** 혼인이 늦어진 노총각, 노처녀에게 경사 있겠다. 행운을 잡아라. 친구 도움으로 짝꿍 생길 듯. 그, 바, 오 성씨 만약 지금 사귀는 이가 있다면 오히려 갈등 심각. 기혼자는 부부의 사랑을 더욱 깊게 해서 관심 보여야 할 때. 적극성 필요.



▶**성운** 비밀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성격에 부부간 일을 친구에게 말해서 그 말이 메아리가 되어 큰 소리가 날 듯 하니 잡담은 금물이다. 1, 4, 8, 12월생 받을 것 못 받고 줄 사람은 많으니 한숨뿐이구나. 쥐, 말, 닭띠를 멀리하라.



▶**성운** 포용력이 있으니 어디에 가더라도 대접을 받는다. 사업에도 빛이 보이니 미래에 웃음소리가 들린다. 쉬는 것도 내일을 위함이니 건강 조심하고 남과관계는 절대 금물이다. 3, 4, 12월생 원치 않는 일로 근심걱정 분.



▶**성운** 남이 주는 것이 공짜라고 마구 먹어대면 소화가 안 된다. 지금 약을 먹더라도 시기는 이미 늦은 듯. 1, 5, 9월생 친 퇴양난격. 주변을 빨리 정리하라. 도피는 불가. 움직이면 차는 두고 나가라. 66년생 화근이 뒤따르니 서쪽 출입 삼가야.



▶**성운** 근면 성실한 태도에 주위 사람들의 호응을 받게다. 사, 오, 자 성씨 현재는 별 소득이 없을지라도 꾸준한 노력이 덕이 되어 승진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연상, 연하와 인연되어 구설이 우려된다. 항상 행동을 바로 함이 좋을 듯.



▶**성운** 허영심만 버리면 서쪽에 그, 오, 자 성씨가 만나 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가족과 약속이 있으니 내일로 정하자고 하라. 당신의 가정에 충실하고 있는 모습에 더욱 감탄하라. 나, 오, 자, 툄 성씨 애정과 사업에 갈등이 크다. 건강 조심.



▶**성운** 취중에 하는 말이 백배로 효험이 있는 날이다. 공짜로 얻어먹고 푸념한 것이 상대방 심중 울린다. 더욱 친밀함이 올 듯. 연인의 마음도 열리는 날. 바, 자, 음 성씨 범, 닭, 돼지 띠가 힘이 되어 줄 듯 하니 꼭 잡아라.



▶**성운** 용기가 부족하고 결단력이 없어 잘 되어가는 일을 망설이고 있다. 오늘은 스포츠라도 여유있게 즐기자. 용기를 얻어 내일 하려는 일은 미리 착수하라. 생각보다 진행이 빠르게 될 것이다. 그, 사, 음 성씨의 조언을 참작할 것.



▶**성운** 흐트러져 있던 재물이 모이는 격이여 직장인은 상사에게 칭찬도 받게다. 동쪽에 귀인이 있겠으니 언행 조심하고 겸손한 태도가 좋을 듯. 3, 5, 9월생 사랑싸움 길면 안 된다. 2, 6, 10월생 금융계에 투자는 길. 그, 사, 음 성씨 멀리하라. 파란색이 길.